

돈 버는 민자업체, 돈 붓는 광주시

제2순환도로 혈세 들여 방음벽 설치...관리업체 책임론도 대두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으로 매년 200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도로 관리·운영에 따른 소음방지시설까지 거액을 들여 설치해 주기로 하면서 제2순환도로로 인한 광주시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제2순환도로를 관리·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1구간, 3-1구간 민간 투자업체 '맥

퀴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퀴리)'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소음피해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제2순환도로 주변 아파트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월지구·중앙지구·광안고교 등에 길이 700m의 터널 및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구 진월동 모아파트 주민 박모씨 등 300여명이 소음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제2순환도로를 관리하는 광주시에 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광주시가 소음시설을 설치해줄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중앙지구 모아파트 주변과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북구 운암동까지 포함시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지구 모아파트의 경우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청구액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됐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일반 방음벽이 아닌 터널 방식을 도입하면서 예산도 늘어났으며, 제2순환도로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산재해 있어 유사한 소송이 제기

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222억원 등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광주시는 잇단 소송과 소음감시시설 설치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반면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업체인 맥퀴리는 국내에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14개 기반시설에 투자해 지난 2009년 1002억2300만원, 지난해 1114억4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민자업체는 도로를 관리·운영하면서 수익을 보는 반면 재정보전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광주시가 막대한 소음방지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맥퀴리는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에 각각 1903억원과 931억원을 투자해 지난 2001년부터 28년간, 지난 2004년부터 30년간 최소통행료 수입을 보장받고 있으며,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5년째 맥퀴리 측과 최소수익보장을 인허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손해배상 청구액이 9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하고 재판부가 환경권을 중시하는 분위기여서 예산을 확보해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늘어나는 차량 통행량과 재정보전금 지급 등으로 운영업체인 맥퀴리는 수익을 챙기고 그로 인해 광주시의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경연

지난 31일 금호패밀리랜드에서 열린 제56회 호남예술제 초등부 미술·작문 부문 경연 참가자들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솜씨를 뽐내고 있다. 미술·작문 경연에는 모두 5000여명이 참여, 1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림

2011 월드리구 국제남자배구대회



6, 18(토)·19(일) 오후 2시 광주 염주실내체육관

세계배구 강호들이 격돌하는 2011 월드리구 국제남자배구대회 한국 대 쿠바전이 오는 18일과 19일 광주에서 벌어집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쿠바와 함께 D조에 속한 한국 국가대표팀은 수원·인천 경기에 이어 홈 마지막 경기인 쿠바전을 광주에서 갖습니다.

한국팀은 광주출신 득점기예 김요한, 신예 주포 김정환, 세계최고 리베로 여요현선수가 포진해 쿠바와의 1차전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카리브해의 다크호스 쿠바팀은 지난해 월드리구 4위, 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강팀으로, 신장 2m가 넘는 선수가 8명이나 포진하고 있으며 윌프레도 베레노, 페르난도 라모스 등 센터진은 3m50cm대의 고공 스파이크로 무장했습니다.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주최 : FIVB(국제배구연맹)
- 주관 : 대한배구협회·광주시배구협회
- 후원 : 광주일보사·IBK기업은행

光州日報社

F1 경주장 전담개발공사에 넘긴다

소유권, 운영·관리권 이관 추진...타당성 검토 용역

전남도가 F1(포틀랜드)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전담개발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대회 운영기업인 카보(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가 갖고 있는 경주장 소유권을 비롯, 운영·관리권을 전담개발공사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주동식 F1대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카보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한편, 경주장의 경우 장기적으로 제 3차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경주장 건설을 위해 끌어들이던 PF 대출금(1980억원)의 경우 전담개발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장기 부채로 대체(차환)하는 한편, PF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536억원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2016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인수 조건으로 내놓았다는 게 정우태(장흥 2·민노)의원측 설명이다. 또 이미 지어진 경주장 건설비용(4425억원)은 개발공사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전담개발공사도 이같은 인수 조건을 고려해 지난 4월 말 'F1 경주장 인수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으며 최근 중간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은 최근 열린 중간 보고에서 정우태 지방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1980억원인 PF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경주장을

인수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 제시돼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F1 대회로 수익은 커녕 '적자'를 면치 못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카보 주주사인 SK가 '시공사 주식 매도권'마저 행사한 점을 감안,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담개발공사에 PF 대출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주장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우태 전남도의회 의원은 "전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세부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조만간을 F1 대회를 위해 도비 328억원과 지난해 확정된 국비 200억(경주장 건설비용), 특별교부세 40억원 등을 배정할 추가경정예산안과 올 대회 개최권료(3976만2000달러) 지급 시기를 연장하는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분쟁 타결

임단협·고소 취하 등 합의

워크아웃 중에 파업과 직장폐쇄로 갈등을 빚어온 금호타이어 노사가 징계 및 소송 취하,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 등 쟁점사항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파업 선언을 한 지 22일 만이다. (관련기사 8면)

지난 3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

사는 전날인 30일 밤 10시30분께 지난해 합의한 임단협 및 노사동의서 존중과 성실 이행, 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고발 취하, 생산장려금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2011년 노사 특별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특별합의서에서 노사 양측은 임단협 합의사항 및 노사동의서를 존중하고 상호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또 회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을 통해 워크아웃 조기 극복과 공헌 사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회사는 징계 해고자 17명 가운데 14명의 해고를 취소하고, 노조 집행부에 대한 민사상 소송을 단계별로 취하하며, 형사상 책임은 상호 최소

화하기로 했다. 다만 파업을 주도한 김봉갑 위원장 등 3명은 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사는 지난해 경영성과의 밑거름이 사원들의 노력을 인정해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기간에 정년자의 퇴직금 보전방안 등에 대한 노사협의체를 통한 논의, 파업 기간 손실 보전을 위한 추가 근무 조건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노조는 이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근무 조별로 설명회를 한 뒤 오는 6~7일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노사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 배워요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류센터(www.hannew.org.nz)와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특징 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

기존 '해외과외형'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영어실력을 키운다.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전엔 별도 영어교실도 실시한다.

특징 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

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별해 연수기간내내 편안하

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는다. 교사가 주 1회 가정방문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한다.

특징 3 연수생 안전에 만전

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지 학교 교직원과 한뉴문화교류센터 교직원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밀착 관리한다.

| 연수기간 | 2011년 7월 28일 ~ 8월 25일
| 연수학교 |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4개교
| 연수대상 | 초등 4~6학년, 중학생 1~3학년

| 연수인원 | 선착순 40명
| 신청마감 | 2011년 6월 23일
| 문의 | 062-220-0641 · 019-268-3635

| 주 최 | 광주일보사 | 주 관 | 한뉴문화교류센터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